

# 인도적 경쟁을 위한 새로운 조류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창가학회) 회장

2009년 1월 26일

현대문명의 혼미를 더하는 '추상화 정신'의 덫에서 탈피

시련에 맞서는 인간의 개가를!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 담보대출)의 상환불능, 리먼브라더스의 경영파탄 등에서 시작한 지난해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는 '백 년에 한번'이라는 충격으로 국제사회를 강타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경제공황에서 세계대전으로 전략의 길을 걸은 1930년대의 악몽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칠혹같이 어두운 밤을 손으로 더듬어 나아가는 듯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경기후퇴, 고용정세의 악화 등 실물경제의 기반을 가차없이 위협하고 있어, 80년 전의 대공황이 금융위기 1, 2년 뒤 본격적인 혼란에 빠진 것을 생각하면 사태의 추이를 전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평화롭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권리를 위해 조금도 태만하지 않고 부지런히 날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생활 기반이 예상치 못한, 그것도 거의 관여할 수 없는 차원에서 '쓰나미'와 같은 충격으로 번룡당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국은 때를 놓치지 않도록 더한층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재정, 금융 등 모든 면에서 중지(衆知)를 모아 온 힘을 다해 대처해야 합니다.

**'화폐'에 대한 끝없는 욕망**

이번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은 일설에 따르면, 말할 것도 없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네 배가 넘는 금융자산을 남발한 데 있습니다. '폭주(暴走)자본주의' '강욕(強欲)자본주의' 라는 말이 어지럽게

퍼지고 있는 것처럼, 본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역'이어야 할 금융이 '주역'의 자리를 차지해 그것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이익, 돈벌이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총아(寵兒)처럼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그 근처에는 이 제언에서 몇 번이고 경고한 것처럼 '화폐애(貨幣愛)'에 빠진 세계적인 배금주의라고 할 수 있는 문명병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붕괴 후, 세계의 조류는 포스트냉전에 대한 사람들의 희미한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富)의 신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시장경제를 관리하는 '화폐'는 종이나 금속 파편(최근에는 전자정보)에 지나지 않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용가치는 전무(全無)에 가깝습니다. 있는 것은 교환가치뿐입니다. 교환가치는 사람끼리 약속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추상적, 비인칭적인 존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환가치는 재화나 서비스처럼 구체적, 한정적인 대상물이 없고 제한 없이 넓습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화폐애'라는 특징으로 숙명적인 병리가 있습니다.

### 철학가 마르셀이 경고한 것

금융시장뿐 아니라 시장경제 전체에 일관된 "효율성과 불안정성의 근원적인 '이율배반'"을 지적하는 이유겠지요. 이윤을 올리기 위해 끝없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실물의 근거가 결여된 화폐의 불안정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기조로 시장경제가 발달한 현대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철학가 가브리엘 마르셀이 제2차 세계대전을 돌이켜보면서 '추상화 정신-전쟁의 요인이 될 만한 것'이라는 흥미진진한 논점을 제기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추상작업 그 자체는 인간의 지적인 영위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인간' 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질은 일본인이나 미국인, 남자나 여자, 청년이나 장년으로 어느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고 세분하면 결국 십인십색으로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구체성이라는 세계의 실상(實像)입니다. 그 점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 '인간'을 논하지 않으면 추상개념은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마르셀이 말하는 '추상화 정신'은 그 구체성에서 괴리(乖離)한 나쁜 독보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 개개인의 구체적인 인격의 특성을 전부 도외시하고 적(敵)을 추상적인 개념 즉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시온주의자, 이슬람 과격파 등으로 한데 묶으려고 합니다.

마르셀이 분석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을 절멸(絶滅)할 준비를 해야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필연적으로 없애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의 개인적 실재에 대해 의식을 잃고 맙니다. 이러한 인격적 존재를 하루살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존재를 추상개념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 참가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추상화 정신'은 중립적이고 무가치적인 위치에 머물지 않고 '가치 폄하적인 귀납(의역하면 가치를 멸시하기 위한 결정)을 일으키는 '정념(情念)적 측면'이나 원념(怨念)을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즉 추상적 개념으로 한데 묶는 순간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저급한 것, 유해한 것으로서 없애야 할 대상의 위치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추상화 정신은 정념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반대로 말하면 정념이 추상물을 날조한다."고 말하는 마르셀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철학상의 모든 일은 '추상화 정신에 대한 끊임없는 집요한 투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지적은 지금도 빛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인간이 정시안을 잃은 사회

지금 현재의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경위에 눈을 돌릴 때, 시류는 일종의 '추상화 정신'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화폐'의 추상성, 비인칭세계에 사는 메두사<sup>1</sup>의 마력(魔力)에 희생물이 되어 그

---

<sup>1</sup> 메두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고르곤 세 자매 중 한 사람. 머리에는 머리카락 대신에 뱀이 나 있는 흉측한 용모로 눈에는 인간을 돌로 만드는 힘이 있다. 영웅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보지 않도록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다가가 목을 베었다.

것을, 인간사회에 불가결한 것일지라도 어디까지나 약속한 일, 가상현실에 불과하다고 간파하는 '인간'으로서의 정시안(正視眼)을 잃고 화폐에 대한 '숭배' 또는 '저주'라는 '정념'에 눈이 먼 것은 아닐까요.

배금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숭배'의 산물이고 '화폐'라는 물질적 욕망을 넘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회사를 예로 들면 그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공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단기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주주의 '사적' 의향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영자, 종업원, 고객·소비자 등으로 넓혀지는 구체적인 인간의 연대라는 인칭세계의 구체적인 일들은 뒤로 미루며 도외시하고 맙니다.

본의는 아니었으나 그런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심 있는 경영자의 탄식이 세계 각지에서 들립니다.

'전체 인간'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인간다울 수 있다는 인간의 조건을 망실(忘失)하여 '추상화 정신'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화폐적 가치밖에 염두에 두지 않는 '경제인(호모 이코노믹스)'으로 어느새 자신을 폄하하는 금융주도의 세계화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엄청나게 배출했습니다.

세계화와 반비례하는 듯한 사람들의 폐색감은,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불후의 테제(강령)에서 볼 때, '이(利)'에 눈이 어두워 "나는 나이고 나의 환경이다." (돈키호테의 명상)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자연환경이나 문화환경(유서 깊은 거리나 지역 공동체 등)을 파괴하고서도 인간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오만한 이기주의가 스스로 초래한 말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디 '경제인'이라 해도 특정한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내장되어 있는 벡터(힘의 방향성)의 소산으로 주주는 당연하고, 경영자나 종업원, 고객·소비자라고 해도 자본주의가 순화할수록 그 벡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 자본주의 폭주가 부른 사회의 혼미

'승자의 대상(代償)' 이후 현대 자본주의의 지나친 동향에 경종을 울린 로버트 라이슈 씨(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 역임)는 최근에 발행한 저서 '폭주하는 자본주의'에서 '전체 인간'이 띠는

다면적 성격을 단적으로 '투자가' '소비자'의 측면과 '시민'의 측면 두 가지로 요약하고, "귀찮게도 우리는 대부분 두 가지 측면의 소유자다. 소비자나 투자가로서 우리는 유리한 거래를 바라지만, 우리는 시민으로서 그 결과가 가져올 사회적 악영향을 염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양자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전체 인간답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지만, '초자본주의' 하에서는 "소비자와 투자자가 권력을 획득하고, 시민이 권력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초래된 것이 자본주의의 우세와 민주주의의 열세입니다. 그것을 석권하는 배금주의라는 일원적(一元的) 가치관이 세계적으로 소득격차의 확대, 고용의 불안정화, 환경파괴 등 자본주의의 마이너스 측면을 증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의 금융위기, 경제위기는 플러스 측면인 부(富)의 확대라는 면에서도 실체와 괴리한 수상쩍은 의문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규제완화나 기술혁신에 힘입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보인 세계화도 지금은 세계 동시불황이라는 태풍 수준의 역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유경쟁에 맡겨두면 시장은 만사 잘될 것이라는 예정조화적 방법의 파탄은 누가 보아도 확실하므로 과거에 겪지 못한 난국에 대한 대응은 절박한 사태를 알려줍니다.

눈에 거슬릴 정도로 지나친 금융자본의 폭주에는 제동을 걸어야 하고, 기업실적의 급격한 하락과 그에 따른 참혹한 고용정세의 악화는 가능한 한 대담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재무, 금융면에서 지원, 안전망의 정비 등)이 급선무임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날 국제정세를 뒤덮는 빈곤문제입니다. 그것은 직업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영위를 위협하고, 사는 의미, 목적, 희망 등 인간의 존엄, 사회의 존망에 관한 것인 만큼 총력을 다해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이 넓은 시야를 지닌 경륜이 많은 인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정치가는 자각해야 합니다. 세계 자본주의라는 성난 말의 고삐를 죄는 역할은 뭐라고 해도 '정치'나 '국가'에 부과된 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국가'에 따른 통제, 조정에 너무 기대한 나머지, 만에 하나라도 파시즘의 대두를 허용한 1930년대의 전철을 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에서도 나는 마르셀이 말하는 '추상화 정신'의 경종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호칭'이 선행해 독보적인 폐해

일본에서는 세계화의 '마이너스' 현상으로 '격차사회'나 '승자그룹' '패자그룹'이라는 이상한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요즘처럼 생활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사태는 한시라도 방치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현상을 추상적인 '호칭'으로 한데 묶으면 인간 개개인의 노력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의 세계를 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놓일지라도, 또 사회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외적 조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다해 장벽에 맞서는 많은 사람의 실상은 그런 '호칭'과 거리가 멉니다.

승패라고 해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호칭'이 경제지상주의적 가치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며 전인격적 가치를 감싸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 이겼다고 거만하게 굴지 않고, 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으며, 휘예포편을 내려다보면서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유유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에는 한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몽둥그러서 '호칭'을 너무나도 빈번히 사용하면 그러한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 창의적인 궁리라고난에 맞서려는 기개나 용기를 왜소하게 만들고 그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마르셀이 말하는 "무엇인가 모형 같은 최후의 심판을 보려는 약한 정신", 인간성에 등을 돌린 타력본원(他力本願)적인 폭력지향으로 유혹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13년 전, 미국경제가 '절정기'를 구가했을 무렵 '뉴스위크'지(일본어판, 1996년 2월 21일호)는 '이상적인 사회는 어디에'라는 특집 서두에서 "잘하고 있는데도 누구나 불만이 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패러독스다."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금전 수입이 많고 적다는 잣대로만 인간 가치의 우열을 논할 수밖에 없는 경제지상주의, 배금주의 지평에는 원리적으로 '자족(自足)'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어떤 식이든 원한 즉 불만이나 선망이 계속 소용돌이쳐서 한 사회를 정체시키는 '질투 사회'의 온상이 됩니다.

## 문호가 젊은이에게 보낸 조언

지난해 서거하신 우인으로 세계적 문호인 칭기즈 아이트마토프 씨의 말이 떠오릅니다.

아이트마토프 씨는 '아버지로서 조언'으로 "젊은이여, 사회혁명에 많은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혁명은 폭동이자 집단적인 병이고, 폭력으로 국민, 민족, 사회 전반에 걸치는 대참사입니다.(중략) 무혈로 진화하는 길을, 도리에 비취 사회를 개혁하는 길을 찾으세요." 하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마르셀이 '약한 정신'에서 결별을 역설한 것은 파시즘보다도 공산주의(소비에트형 사회주의)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필시기가 1951년(파시즘은 붕괴하고 공산주의는 명성과 인망을 유지하고 있었다.)이라는 점에서도 당연하지만, 마르셀이 가장 경계한 이유는 '잃은 것은 쇠사슬뿐' '수탈자가 수탈된다.'는 추상적인 슬로건이 마치 역사의 필연인 것처럼 가장하고, 원한을 자극해 혁명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폭력, 유혈의 참사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70여년에 이르는 사회주의 흥망의 역사는 마르셀의 통찰이 옳바름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화폐로 상징되는 배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혐오, 저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회주의가 결국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역사의 무거운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발상을 전환해 문명론적 패러다임(사고의 틀)의 전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폭주하는 자본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무엇보다 유효한 것은 법적, 제도적인 통제라는 점 앞에서 말했지만, 그 통제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어가려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80년 전의 대공황 때는 자본주의를 대신해서 불완전하지만 사회주의(공산주의든, 국가사회주의든)라는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대신할 이념, 비전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상'을 탐구

그런데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브레인인 자크 아탈리 씨는 '21세기의 역사'에서 이렇게 단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상은 아주 단순하다. 말하자면 시장의 힘이 세계를 뒤덮고 있다. 돈의 위력이 강해진 것은 개인주의가 승리했다는 궁극적인 증거이며 이는 근대사를 격변시킨 핵심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전 세계적인 배금주의는 반면에 모든 부자유에서 자유로워진 개인주의의 승리이고, '화폐'의 추상적 보편성은 노동력 상품으로 보는 '개인'의 추상적 보편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표리를 이룬다 하겠습니까. 말할 나위도 없이 이런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나 인권 등의 보편적 이념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근대민주주의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내실로 하는 근대사회 시스템이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대신할 보편적인 관점, 지난날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sup>2</sup>의 전철을 밟지 않는 새로운 이념의 지평을 열어야만 합니다. 위기를 회피하려는 절박한 대응은 당연한 일이고, 더 거시적인 전망에 선, 예를 들어 막스 베버가 "인간의 행위를 직접 지배하는 것은 이해 관심(물질적 및 관념적인)이지 이념이 아니다. 그러나 '이념'으로 만들어진 '세계상'은 매우 자주 전철수(轉轍手)로서 궤도를 결정하고 그 궤도 위를 이해의 역학이 인간의 행위를 밀고 왔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시대정신을 이제 바로 구상해야 합니다.

좋은 나쁜 지구사회의 세계화는 거기까지 진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백여 년 전에 한 선견적인 발상

여기서 내가 자본주의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힌트로서 제창하고 싶은 것이 창가학회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초대 회장이 백여 년 전에 서른두 살의 나이로 세상에 발표한 '인생지리학'에서 제기한 '인도적

---

<sup>2</sup>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의 이해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사상. 그러나 소련이 이 사상을 내세워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과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정당화해 이념적으로 실추시키고 말았다.

그 후 냉전구조가 붕괴되자 체제적으로도 사라지고 만다.

경쟁'이라는 개념입니다.

마키구치 회장은 인류사를 조감하며 생존경쟁은 군사적 경쟁, 정치적 경쟁, 경제적 경쟁을 거쳐 앞으로는 인도적 경쟁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디 이것들은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군사적 배경이 있는 경제적 경쟁이 있으면 그 반대도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한데 모여 서로 겹치며 참신한 변화를 이룬다. 그 과정을 세밀히 그리고 대담하게 따라가보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인류는 대개 그 곳, 그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이렇듯 마키구치 회장은 초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학자답게 역사의 내재적 발전 논리를 따라가면서 '인도적 경쟁'이라는 귀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새롭다기보다도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더하는 통찰이 짧은 기술(記述) 속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력 또는 권력으로 이루는 것과 같은 결과를 무형의 세력으로 자연스럽게 훈화한다. 즉 권위로 복종시키지 않고 충심으로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을 내 지인(知人)인 하버드대학교 조지프 나이 교수가 한 말에 비추어보면 “소프트파워는 무엇인가. 그것은 강제나 보수(報酬)가 아니라 매력으로 바라는 결과를 얻는 능력이다.”라는 지적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키구치 회장은 “요컨대 그 목적을 이기주의에만 두지 말고 자기와 함께 타인의 생활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두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타인을 도우면서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미래학자 헤이젤 헨더슨 박사가 제창한 'Win Win World'(모두 승자가 되는 세계)와 강하게 공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삼스레 젊은 마키구치 회장의 통찰에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의 역사는 마키구치 회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지만 백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이 바로 '인도적 경쟁'이라는 선견적 착상, 전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적할 필요도 없이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사회주의가 표방한 '평등' '공정' 등의 슬로건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인도(人道)', 휴머니즘에 입각한 이념이기 때

문입니다.

사회주의가 제도로써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들도 함께 매장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왜 사회주의 운동이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한때는 지구의 3분의 1까지 석권하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20세기의 귀중한 교훈까지도 망각의 연못에 가라앉히고 맙니다.

왜 사회주의는 올바른 이념을 표방하면서 부득이하게 차질을 빚고 말았을까요?

새삼 논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본론에 입각해 한 마디로 말하면, 마키구치 회장이 “만약 자연적 이거나 인위적인 사정으로 자유경쟁이 저해되면 거기에서 침체, 부동(不動), 퇴화가 발생한다.”고 갈파했듯이 인간사회에 활력이 되는 원천인 ‘경쟁’적 측면을 너무나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계급을 없애고 외적인 조건만 갖춘다면 인간다운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상에 너무 의존했습니다.

이기주의가 향하는 대로 방치하는 자유경쟁은 약육강식의 사회다위니즘(자연도태주의)에 빠집니다만, 적절한 틀과 규칙에 따른 경쟁은 인간과 사회에 활력을 줍니다.

따라서 경쟁적 측면을 직시하면서 오히려 인도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쟁으로 전환해, ‘인도’와 ‘경쟁’ 양쪽의 가치를 동시에 작용해 나타내려는 ‘인도적 경쟁’이 21세기를 여는 패러다임의 선구가 아니겠습니까.

### 물정에 밝은 척 단번에 미래를 말하는 오만함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과정은 마르셀이 경고했듯이 어디까지나 구체성에 입각해 더듬어가야 합니다.

물정(物情)에 밝은 척 단번에 인류사가 지향해야 할 대계(大計)를 제시하려는 성급함과 오만함은 ‘추상화 정신’의 적당한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점은 고르바초프 옛 소련대통령이 ‘20세기 정신의 교훈’에서 소련 흥망의 역사에 비취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 점, 고르바초프 씨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여러 가지 예증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세계적인 오페라가수 표도르 샬리아핀의 예술가다운 기지가 넘치는 증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러시아의 ‘건설자들’은 적당한, 자못 인간적인 계획에 따라 평범한 인간을 위한 건물들을 짓는 위치에서, 다시 말해 자신을 보통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공중에 우뚝 솟은 탑, 바빌론의 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극히 보통 수준의 건설적인 보조(步調)로 사람들이 일하러 가고 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7마일 간격’의 보폭으로 미래를 향해 곧장 돌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세계에 이별을 고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당장이라도 낡은 세계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우리 러시아의 현인들이 무엇이든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중략)토끼에게 성냥불 켜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토끼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고, 200년 후 이 토끼의 자손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20세기 정신의 교훈”)

인용이 다소 길었습니다만, ‘추상화 정신’의 포로가 된 인간이 어떻게 민중의 구체적인 생활, 생활실감에서 동떨어져 괴물화하는지를 풍자하며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자못 인간적인 계획...” “극히 보통 수준의 건설적인 보조...”는 마르셀이 말한 구체성과 겹칩니다. 이 구체성의 세계에서 발을 헛디터 ‘추상화’에 빠져들면 뜻밖의 보복을 당합니다.

### 인간사회를 쪼먹는 ‘이웃의 부정’

아이트마토프 씨가 나와 대답할 때 이야기한 유명한 일화입니다만, 스탈린 시대에 파블릭 모로조프라는 소년이 아버지가 부농(쿨라크)과 친밀하다는 사실을 당국에 밀고했습니다. 아버지는 희생되고 소년은 분노한 친족의 손에 살해되는데, 반대로 당국은 이 소년을 사회주의 소년영웅이라며 동상까지 세워 선양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추상물’이 부모자식 간의 애정이라는 ‘구체적’인 도덕을 삼켜버린 하나의 실례입니다.

마르셀은 “테크노크라시는 무엇보다도 이웃의 추상화를 이뤄 결국에는 이웃을 부정하는 곳에서 성립한다.”라며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문명, 기계문명의 병리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테크노크라시의 연장상에 있는 금융공학을 구사한 금융상품으로 거액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소수의 부자가, 화폐라는 ‘추상물’의 화신이 되어 방대한 빈자에게 눈길도 주

지 않고 막대한 부를 독점하는 참상이 마르셀의 칼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웃의 부정' 위에서만 성립되는 번영이 오래 갈 리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서도 안 됩니다.

나는 20년 전에 아직 소련이 존속할 때 한 제언에서 보편적인 관점, 이념을 향한 접근법은 '외재적' 또는 '초월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인간에 입각한 '내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재적 보편'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많은 식자에게 찬동받았습니다. 이데올로기나 화폐의 보편성은 그야말로 '외재적' '초월적' 보편성이며 '추상화 정신'의 산물이기에 구체적 존재인 인간이나 사회를 잠식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재적 보편'은 그 대극에 위치하며 철저하게 구체성의 세계에 뿌리를 내려 그 내면에서만 찾아낼 수 있는 보편적인 관점, 이념을 말합니다.

과제는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 가깝고 구체적인 곳에만 있습니다. 지지난해 이후에 일본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무신론자인 둘째 형 이반이 동생인 알료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내 생각 같아서 먼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가까운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것은 원래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랑을 논할 경우, 먼 추상적인 대상이라면 그다지 저항감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 특히 자기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면 극단적으로 말해 산상수훈(山上垂訓)<sup>3</sup>이 상징하듯이 전인격을 건 정신적 격투나 혼의 회심극(回心劇)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까운 '한 사람'은 인간애나 인류애의 진가를 묻는 시금석이고 리트머스시험지입니다.

이는 이반 특유의 역설적 표현이며 야유입니다. '추상화'를 기다리는 함정이며, 불전에서는 “한 사람을 본보기로 하여 일체중생 평등”(어서 564쪽)이라고 그 점을 엄하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 도이 도시카쓰에게 얽힌 고사

---

<sup>3</sup> 산상수훈(山上垂訓)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제5장에서 제7장에 실려 있는 예수의 가르침.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등의 가르침이 기술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마키구치 회장의 '인생지리학'의 방법론, 접근법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연지리'나 '인문지리'에 비해 호칭부터 독특한 '인생지리'라는 어감은 구체성의 세계인 현실성-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인간생활 만반에 걸친 두께와 깊이와 넓이를 함의(含意)하고 있습니다. 마키구치 회장이 집필 모토로, 요시다 쇼인의 "땅을 떠나 사람 없고 사람을 떠나 일 없다. 인간사를 논하려면 먼저 지리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말을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장 놀라운 것은 구체성의 이명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성에 철저하게 중점을 두고, 그것을 빼고서 어떤 지평도 전망도 열리지 않는다는 '내재적 보편'의 접근법입니다.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광대한 천지의 상태는 실로 손바닥만한 작은 땅에 그 대요(大要)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만국 지리에 나타나는 복잡한 대(大) 현상의 개요는, 대략 이것을 벽지의 한 마을로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바로 한 마을의 현상으로 향토의 지리를 밝히거나 이것으로 만국의 지리를 이해하기 쉽다."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땅'이라도 그 지역성에 구애되어 그곳에 살며 관찰하고 해명한다면 그곳에서 한 나라,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일을 고찰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키구치 회장은 그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로 에도시대 초기의 정치가인 도이 도시카쓰에게 얽힌 고사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비단실 자투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도이 도시카쓰가 발견하고 어느 부하에게 맡겼습니다. 겨우 실 부스러기라며 비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몇년 후, 그 부하에게 실이 있는지 묻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도이 도시카쓰는 그 공을 높이 사 녹봉으로 300석을 더 올려주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실은 당나라(중국) 농민의 손으로 뽕잎을 따고 누에를 쳐서 실을 뽑아 당나라 상인의 손에 넘어가 머나먼 바다를 건너 우리 나라로 왔으며, 나가사키 사람들의 손을 거쳐 교토, 오사카 상인에게 팔려 드디어 에도까지 온 것으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런 고생으로 만들어진 것을 작은 티끌이라고 버린다면 천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비단실 자투리에서 머나먼 당나라 뽕밭에서 일하는 농민의 노고를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재적 보편'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달음에 '큰 현실'로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좁은 땅'이라는 구체적인 세계에 발을 내디뎌 그곳에 철저히 얽매여 '큰 현상'으로 자유롭게 연상합니다. 이러한 신선한 상상력이라고 할지 생활감각, 생명감각을 지닌 사람에게는, 가까운 사람은 물론 다른 나라에 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아니 풍토나 산물조차도 친밀한 '이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간을 살상하고 국토를 파괴하는 전쟁은 혐오스러운 존재이며 가장 연(緣)

이 먼 존재입니다.

이야기는 조금 비약합니다만, 러일전쟁 무렵의 일화를 한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인 포로 두 명이 잡혀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신기해서 구경가기로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이유를 묻자 어느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향에 있을 때는 직공이었으나, 군복을 입은 이상 일본의 무사입니다. 어디서 온 누구인지 모르지만 적이면서 무사인 자가 온 나쁘게 포로가 되어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틀림없이 분하기 그지없을 것이라 짐작하기에, 딱해서 견딜 수 없어 저는 구경가서 포로에게 모욕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대학교에서 강연(1983년 6월 '문명의 십자로에 서서')한 내용인데, 이 병사가 지닌 감수성의 바탕이 된 것은 직공으로서의 생활감각입니다. 그 건전한 생활감각, 그곳에 깃든 인간성이 적인 이방인을 마르셀이 말하는 '이웃'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전쟁을 긍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대지에 뿌리내린 강인한 인간성 개가의 증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유형수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시베리아 민중의 인간애를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시베리아 민중에게 유형수는 악인도 혐오할 존재도 아닌 어디까지나 '이웃'이었습니다.

### 인간부재의 전도를 극복하는 길

먼저 가깝고 구체적인 곳에서 시작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위를 '이웃'으로 하는 인간연대를 끊임없이 구축하는 작업, 이곳에 평화로 가는 왕도가 있으며 이것을 착실히 쌓아 올리지 않고서는 항구평화의 지평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감수성, 생활감각의 공유가 바로 '내재적 보편'이라는 내실입니다. 마르셀이 말하는 '추상화 정신'에 오염되지 않는 구체성의 세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성, 인간성이 윤택해지면 '추상화'의 병리를 몰아내고 '이데올로기'로 인해 '인간'이, '목적'으로 인해 '수단'이, '미래'에 의해 '현재'가..., 간략하게 말하면 '추상적 존재'로 인해 '구체적 세계'가 희생되어 재물이 되는 인간부재의 전도(轉倒)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나타나는 것은 '화폐'와 같은 추상적, 비인칭적인 존재가 잘난 체 행동하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이나 '인간'이라는 가상(假想)이 아닌 진실한 현실성에 초점을 맞추는 인간성 넘치는 시대이며 세기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인도적 경쟁'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산적한 지구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앞서 논한 경제위기에다 지구온난화와 에너지문제 또 식량문제와 빈곤문제가 연쇄적으로 작용해 형세가 악화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날 상황은 역사의 프리즘을 통해 보면 1929년에 발생한 세계공황이 다시 시작된 듯한 생각마저 드는 충격과 1970년대 전반에 달러방위정책<sup>4</sup>이나 석유파동 등으로 여러 가지 지구적 문제가 잇달아 표면화한 상황이 단번에 엄습하는 듯한 양상마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1930년대에는 세계공황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관세인하와 환율안정에 관한 정책협조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교섭은 성립되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권익만을 지키려는 경제정책이 위기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른바 '궁지에 빠진 죄수'와 같은 상태를 초래했으며, 세계공황에 대한 반성이 결실하는 데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극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한편 1970년대 전반에는 유엔이 주최하는 환경문제와 식량문제에 관한 세계회의를 처음으로 열었으며 선진국으로 구성된 서밋(정상회의)도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현재에 이르는 국제적 협조의 실마리가 되기는 했지만, 당시의 여러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아직도 산적해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국익의 대립 앞에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에게서 지난 위기의 시대에 취한 조치를 훨씬 능가하는 '대담한 구상'과 '대담한 도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

#### <sup>4</sup> 달러방위정책

1971년 8월,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달러 금태환(金兌換) 정지를 선언한 정책. 베트남 전쟁에 따른 재정 악화의 해결책으로 수입과징금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달러방위를 도모한 결과, 세계경제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후 외국환 시세는 '변동 시세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된 미국에서는 '변화(변혁)'를 구호로 내건 버락 오바마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세계는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책임은 지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일이 요망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변혁을 위해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도적 경쟁'을 구현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세계적 위기를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양식'으로 바꾸면서 '평화롭고 공생하는 세기'를 건설하기 위해 중요한 점을 세가지 항목으로 들고 싶습니다.

첫째는 환경문제에 대처하며 '행동을 공유'하고, 둘째는 지구의 공공재산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며 '책임을 공유'하고, 셋째는 핵무기를 폐절하기 위해 도전하며 '평화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기후변동의 영향

첫 번째 주요항목에 관해서는 특히 지구온난화에 초점을 맞춰 논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각지의 생태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상재해나 분쟁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빈곤이나 기아를 확대하는 등, 21세기의 전 세계적 위기를 상징하는 문명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때부터 이 주제를 중점과제로 내걸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윤택하든, 빈곤하든 예외 없이 이 지구상 어디에도 기후변동이 초래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경고한 것처럼, 이 위기는 누구든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할 수만은 없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복합적인 위기'임과 동시에 자손들 세대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면에서 '미래마저 해치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해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교섭에서 눈에 띄는 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12월까지 적극적인 논의가 기대되지만, 앞으로는 선진국이 대처를 더 강화해야 함은 물론, 신흥국이나 도상국 사이에서도 무엇인가 행동을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음은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 신흥국과 도상국을 포함한 활동에 착수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행동을 공유'하도록 도모해야 할까요. 나는 국제적으로 에너지정책을 협력하는 데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문제는 신흥국이나 도상국도 직면해 있는 절실한 문제이며, 선진국 측에서도 '저탄소 순환형사회'로 전환을 도모하는 데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근본적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60퍼센트에 가까운 양은 화석연료 소비 등에 따른 것이니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제창하는, 그린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고용창출 계획처럼, 에너지나 환경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는 상황을 만들며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검토하는 일이 일본이나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확대되며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 제언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절약 정책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저탄소 순환형사회'로 이행하도록 도모하는 접근법에 관해 언급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인도적으로 경쟁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50개국 이상이 이미 찬동을 표명한 '국제재생가능에너지기구'를 설립하는 일인데, 이달(1월) 26일에 독일에서 협정문서 조인식이 열려 신흥국이나 도상국을 포함한 형태로 국제적인 협력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도 7년 전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촉진조약'을 제안하고,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도록 권유한 만큼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도 지난달(2008년 12월) 서방 선진 8개국(G8)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을 더해 각료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국제 에너지 절약 협력제휴' 활동을 개시하며 사무국을 국제에너지기구에 설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교토의정서<sup>5</sup>에서 비준한 제1약속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 이 두가지 새로운 활동을 궤도

---

<sup>5</sup> 교토의정서

1997년 12월에 교토에서 개최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의정서. 제1약속

에 올리고, 국제협력이라는 실적을 쌓으며 '기후변화협약'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양 수레바퀴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바탕으로 나는 이 두 분야의 활동을 계승하는 형태로 유엔에 '국제지속가능에너지기구'를 창설하고, 국제적인 에너지정책 협력을 전 지구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면 경제적인 경쟁 면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자금을 협력하면 새로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염려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승적(大乘的)인 견지에서 온난화 방지라는 공동목표를 근본으로 서로 협력하는 일이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말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 자기도 이익을 얻는" 길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국익마저 담보로 할 수 있는 '인류의 이익'으로 직결하는 일임을 명기해야 합니다.

또 이 새로운 기구는 에너지 정책에 한하지 않고, 지방 자치체를 비롯해 기업이나 비정부 기구(NGO)도 참가시키는 형태로 지속 가능한 지구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공개등록제도'를 마련해 어느 단체든 활동내용이나 실적을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추적해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고 정보를 교환하거나 깊이 연계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창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지난해 11월 '기후변동과 새로운 환경윤리'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미래의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하고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일이 지닌 중요성이 초점이 됐으며,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에 핵심을 두었습니다.

우리 SGI는 지구헌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작해 각지에서 '변혁의 종자-지구헌장과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일뿐 아니라, 다른 단체와 연계하며 각국에서 식수(植樹)운동 등 자연보호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는 단독으로 추진해도 의의가 있겠지

---

기간에 해당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당사국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퍼센트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각국 별로 구속력 있는 수치를 제시했다.

만, 함께 손을 맞잡고 행동하는 속에 몇 배, 몇십 배나 더 크게 사회로 파동칠 것입니다.

이렇듯 연대를 확대하는 도전과 유엔이 내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개년'이 올해로 중간지점을 맞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민중 자신이 교육과 홍보 면에서 활동하거나 의식계발에 적극적으로 의무를 다하며 지속 가능한 지구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재'가 기아인구 증가를 초래

다음은 두 번째 주요항목인 지구의 공공재산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며 '책임 공유'를 확립하기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세계식량은행'을 창설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난해 제언에서 인간개발이나 인간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안전한 식수(食水)확보'를 제안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확보'는 그보다 더 인간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빈곤에 맞서 투쟁하는 출발점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006년 가을 이후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식량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새로이 4000만명이 기아상태에 처하고, 세계적으로 영양이 부족한 인구는 9억 630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로 발생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가격급등을 초래한 배경에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문제의 영향으로 투기자금이 곡물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점과 에너지 수요가 증가해 바이오 연료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식용곡물 생산량이 하락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도 일정량의 곡물을 '지구의 공공재산'으로 규정하여 늘 비축하고, 식량위기 때는 긴급 원조용으로 공출하거나 시장에 방출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35년 전, 기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식량전략'이라는 말

이 횡행하던 시대에, 국가 간의 정치적인 싸움에서 인간생명의 토대인 식량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계식량은행'이라는 구상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물론 자기 나라의 식량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희생 위에 성립하는 국가적 이기주의여서는 안 되며 세계적인 식량 안전보장을 확립하도록 지향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도야코에서 열린 서밋에서도 식량문제가 초점으로 떠올라 세계 식량 안전보장에 관해 G8 정상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인도적인 목적을 위해 국제적으로 조성한 가상비축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리고, 비축하고 관리하는 본연의 자세에 관해서도 검토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로버트 제릭 세계은행 총재도 도야코서밋을 개최하기 전부터 각국 정상에게 비축제도를 창설하자고 강조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 소프트파워로 서로 경쟁하는 도전

두 번째 제안은 빈곤의 극복과 보건위생 개선을 비롯한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연대세 등, 혁신적인 자금조달기구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유엔회의를 계기로 의논이 활발해지고, 이미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를 줄이기 위한 '예방접종을 위한 국제금융시설'과 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HIV/AIDS)를 비롯해 말라리아, 결핵 등 감염증 치료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항공세권'이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이 제도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도 증가해, 2006년에 시작한 '개발자금을 위한 연대세 리딩그룹'에는 50개국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현재도 '통화거래 개발세'와 '탄소세'를 비롯해 다양한 기구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21세기의 마셜 플랜이라고도 해야 할 인도기금(人道基金)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나라가 관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혁신적 자금조달기구의 구축은 각국이 좋은 의미에서 아이디어나 구상이라는 소프트 파워

로 서로 경쟁하는 것이 바로 '인도적 경쟁'이라고 부르기에 걸맞은 주제입니다.

우선은 2011년 제4회 '유엔후발개발도상국회의'를 지향해 의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밀레니엄개발목표' 달성을 향한 기세에 속도를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개발목표' 달성 기한인 2015년 이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대책을 '지구사회 안전망'으로써 그물코처럼 둘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이 지난해 경제발전 면에서 세계에서 오랫동안 뒤쳐진 58개국 국민들을 가리키는 '바텀 빌리언(최하층 계급 10억명)'이라는 말을 하나의 키워드로 주의(注意)를 환기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확대되어 태어난 나라와 장소에 따라 인간의 '수명 격차'나 '존엄 격차'가 거의 결정되고 마는 상태는 '지구사회의 왜곡'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것은 루소가 원초(原初)적인 사회감정이라고 한 '연민'을 지킨 인간의 존엄에 관해 몰두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박사는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하기보다 기본적인 잠재능력이 빼앗긴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정곡을 찌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텀 빌리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확실히 필요한 것도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의 다리로운 걸음 내딛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의 증거'가 되는 '후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혼란 속에서 경이적인 부흥을 이룩한 경험이 있는 일본은 21세기의 세계에서 '누구나 진실로 인간답게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권리'를 '지구 공공재산'으로서 확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 성실히 NPT 제6조 이행을!

이어 세 번째는 핵무기 폐절에 도전하며 '평화의 공유'를 도모하기 위한 틀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먼저 핵무기 삭감을 목표로 세계 핵무기 95퍼센트를 보유하는 미·러 양국이 군축교섭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핵문제를 논하는 데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보유국에게 그 지위를 영원히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 국제사법재판소가 1996년에 핵무기 사용에 관한 권고적 의견<sup>6</sup>을 냈을 때 재판장이었던 모하메드 베자위 씨가 지난해 성실한 핵군축 교섭을 요청한 제6조의 의미에 대한 진술에는 천금 같은 무게가 있습니다.

“‘성실함’이 바로 국제법의 근본을 이루는 원칙이고, 이 ‘성실함’이 없으면 모든 국제법은 파탄나고 말 것이다.”

“‘성실함’은 각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가맹국 이외의 국가도 포함한 다른 국가의 협력 아래 핵군축이라는 NPT 목적을 향해 국제사회가 조금이라도 접근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NPT에 대한 신뢰성은 보유국의 성실한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군축교섭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는 근본적으로 ‘성실함’에 모순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헨리 키신저 박사를 비롯해 미국 전(前) 정부고관 네 명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2년 연속 호소한 이후, 보유국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의논이 활발하게 진행된 일은 주목됩니다.

지난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에 “탄도미사일의 일촉즉발 경계태세를 해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동해, 양국의 핵무기와 핵물질 비축을 극적으로 삭감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제1차 전략무기삭감조약(START1)을 대신하는 핵군축에 관한 새로운 조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함과 동시에 푸틴 총리도 “우리는 ‘판도라 상자’를 닫아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러 정상회담’을 하루라도 빨리 개최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담한 핵군축을 목표로 기본합의를 하고, 2010년 NPT 재검토회의를 목표로 양국이 성실히 군축에 임하는 자세를 세계에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기한이 끝나는 START1의 삭감규모를 훨씬 상회하는-2000년에 러시아가 미

#### <sup>6</sup>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1994년 12월에 개최한 유엔총회의 결의(決議)를 받아 1996년 7월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시한 권고적 의견.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은 국제법과 인도법의 원칙, 법규에 일반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함과 아울러 NPT 제6조가 정한 ‘핵군축에 대한 성실한 교섭’을 완료해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에 제안한 양국의 핵탄두를 1000발까지 줄이는 안을 범위에 넣었다-새로운 핵군축조약을 미-러 간에 체결해야 합니다.

그 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대한 미국의 비준이나 '무기용 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조약'의 교섭 등, 오랜 세월을 걸친 현안도 즉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합의를 토대로 다른 보유국의 정상에게도 참가를 호소하며, 유엔사무총장을 포함해서 '핵군축을 위한 5개국 정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NPT 제6조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표(行程表) 작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유국의 군축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NPT의 범위 밖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핵무기 능력의 동결이나 핵군축을 향한 서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 원수폭 금지 선언이 단죄한 것

이 핵군축과 병행해 다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핵무기 금지조약(NWC)'에 따른 '핵무기 비합법화' 확립입니다.

NWC는 핵무기 개발부터 실험, 생산, 저장, 이양, 사용, 그리고 사용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그 모델안은 이미 NGO가 주도해 기초를 만들었고, 1997년에 코스타리카가 유엔에 제출한 후 2007년에 개정판이 다시 유엔문서가 되면서, 지난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조약의 교섭검토를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핵억제 정책을 전혀 개선하지 않으려는 보유국에 대해 새로 보유국이 되기를 바라는 나라들이 자기 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정당화 논리를 펼치더라도, 어떤 나라도 일체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스승인 창가학회 도다 조세이 제2대 회장이 서거 전해(1957년 9월)에 '원수폭 금지 선언'을 발표하고, "어떤 나라든 그것을 사용한 자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단죄한 이유도, 핵보유의 근저에 숨은 국가이기주의가 인류의 미래에 씻을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하는 원흉이 된다는 점을 주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NWC에 핵보유국을 참가시키는 일은 어렵겠지만,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NWC는 유명무실해진다고 염려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인도와 영국 등, 일부 나라들은 여러 조건을 달아 유보하면서도 핵시대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발효되지 않은 CTBT가 비가맹국에도 핵폭발실험 일시정지를 선언하는 상황을 야기했듯이, NWC가 보유국에도 어떤 형태로 자기억제를 강요하는 규범으로서 그 무게를 지니기를 기대합니다.

핵보유국이 즉시 교섭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그 전 단계로서 기존의 비핵지대조약 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완수함과 아울러, 지난해 제언에서 주장한 '북극 비핵지대조약' 제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등, 설령 지역적인 제한이 따른다 해도 '핵무기 비합법화'의 흐름에 따르는 '성실함'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소리는 높아지고 있고, 보유국을 포함한 21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평균 76퍼센트의 사람들이 핵무기 사용금지와 관련한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NWC의 실현을 바라는 지구적인 연대형성에 연결하면서 시민사회의 후원으로 새로운 군축조약의 역사를 연 '대인지뢰 전면금지조약'과 '집속폭탄 금지조약'에 이어지는 형태로 "핵무기 금지 포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집속폭탄 금지조약'이 이례적인 속도로 성립한 이유도 비인도적인 무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국제여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존재인 핵무기에 관해서도 '인도적 정신이 군사(軍事) 논리를 이기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카터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등이 서명한 핵폐절 운동 '글로벌 제로' 창설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운동의 특징도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은 광범위한 국제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입각하는 점에 있으며, 내년 1월에 각국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대표가 참가하는 '세계서밋' 개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서밋 개최는 나도 오래 전부터 주장했으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최하는 이 세계서밋과 NPT재검토회의에서 다룬 의논점을 발판으로 NWC 교섭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간의 안전보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절대악

일찍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와 대담했을 때,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중의 강력한 제의와 핵보유를 거부하는 ‘자주거부권’을 전 세계에서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점을 잊을 수 없습니다.

NWC는 ‘자주거부권’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대악”이므로 ‘국가안전보장’뿐 아니라, 전 인류의 평화와 존엄을 추구하는 ‘인간안전보장’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신념을 조약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평을 열어야 비로소 “타자(他者)의 공포와 불행 위에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인류의 목표인 전 세계적인 ‘평화의 공유’라는 서광은 빛나기 시작한다고 확신합니다.

초점이 되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도 위협과 불신의 증폭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전 지역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평화를 공유하는 공간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SGI는 도다 제2대 회장의 ‘원수폭 금지 선언’을 원점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핵무기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포착할 수 있도록 손쓰는 운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선언 발표 50주년을 맞이한 2007년부터는 ‘핵무기 폐절을 향한 세계 민중의 행동 10개년’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핵무기 폐절을 향한 도전과 인간정신의 변혁’전을 개최하고, 올해부터는 창가학회의 여성평화위원회가 취재해 편집한, 여성의 전쟁증언을 발췌해 5개 언어로 번역한 DVD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 증언편’ 상영도 각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NWC 실현을 바라는 ‘국제핵전쟁방지의사협회(IPPNW)’가 추진하는 ‘핵무기폐절캠페인(ICAN)’을 비롯해 다른 NGO와 깊이 협력하면서, 특히 여성과 다음 세대를 담당할 청년과 학생 사이의 연대를 확대하고 국제여론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다 제2대 회장 탄생 110주년을 맞는 내년을 목표로 ‘원수폭 금지 선언’의 규범화로도 될 NWC 교섭을 개시하도록 강하게 주장할 각오입니다.

## ‘인류의 의회’를 지키는 기반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논한 지구적인 문제들에 대처할 인류 공동투쟁의 결집축이 될 유엔의 강화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창설된 유엔이 지금까지 어떻게 산적한 어려운 문제에 대처해왔는가.

지난 60여년의 역사를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며 실상(實像)을 부각한 노작(勞作)에 역사학자 폴 케네디 씨의 ‘인류의 의회’가 있습니다.

내가 특히 감명한 내용은 케네디 씨가 유엔의 역사를 단순히 국제정치사의 한 측면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상호존엄과 번영과 관용의 미래를 구축한다는 공통목적을 위해 인류가 함께 모색해온 활동이야기’로 그려낸 점입니다.

즉 그것은 유엔을 축으로 삼은 인류사를 말하는 것인데, 내 나름대로 바꿔 말하면 유엔헌장의 이념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인도적 경쟁’을 둘러싼 험난한 도전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유엔은 앞으로도 헌장에 위탁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가. 케네디 씨는 그것에 대해 “인류 공통의 선(善)과 장기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불안과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21세기 역사의 대부분은 그 과제에 우리 모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현재 나와 대담을 진행하는 안와르 초두리 전 유엔사무차장과 내가 공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유엔의 미래를 전망했을 때, 우선 필요한 것은 장래에 유엔을 지탱하고 계속 힘이 되는 원천이 될 ‘시민사회와 견고한 협력’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 만들기의 일환으로 유엔에 ‘시민사회담당 사무차장’이라는 직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제안은 카르도주 전 브라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관한 유식자(有識者) 패널’이 200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차장을 NGO 지위향상과 협력촉진을 위해 전문활동을 하는 상설직으로 삼고 평화와 안전

보장, 경제와 사회문제, 개발협력, 인도(人道)문제, 인권이라는 유엔의 주요주제를 토의하는 자리에 참가시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식자 패널보고서에서도 “시민사회는 유엔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그것을 연동시키는 일은 필요하며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고 강조했지만, NGO를 어디까지나 참관인에 그치지 않고 유엔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동료’로서 규정해야 비로소 21세기 유엔의 생명선이 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혁을 이정표로 삼고 유엔헌장이 서두에 내건 ‘우리 연합국 국민’이라는 말을 수사적인 표현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얼굴을 한 유엔’을 실현하기 위한 조류를 항상시키는 일이 요망됩니다.

###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전략이 중요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유엔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명확히 내세우고 구심력을 높이는 조직으로 ‘글로벌 비전국’을 유엔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일찍이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 박사는 내가 1991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소프트 파워에 대해 강연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시대는 ‘정통성을 지닌 통합력 있는 파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사가 “국민과 국가는 과거의 영광에서 그 정통성을 발견하지만, 유엔은 인류의 미래전망에서 그 정통성을 찾는다.”고 지적했는데,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유엔은 정부 간 조직이라는 성격도 있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두리 씨도 유엔에는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와 제반활동을 관리하는 기능은 있지만, 장래 무엇이 인류의 과제가 되느냐를 살펴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문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염려하셨습니다.

나도 그 점에 동감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며 비전을 구축하고 50년 앞, 100년 앞을 응시하며 행동 전략을 세우는 두뇌집단과 같은 기능을 지닌 조직이 유엔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의 관점이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며 청년과 어린이들의 능력개화를 항상 염두에 두는 토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엔 창설 50주년 다음해(1996년)에 창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유엔의 강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유엔의 중요한 레종 데트르(존재 이유)인 '인류 미래를 전망'하는 면에서 유엔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 내가 창립한 보스턴21세기센터와 동양철학연구소에서도 유엔이 다룰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문명 간 대화'와 '종교 간 대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인류의 영지(英智) 결집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 상호이해의 축진이 시급한 과제

어떤 곤란한 과제일지라도 서로 처지와 차이를 초월해 같은 인간으로서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인간주의'에 근거한 대화의 길을 여는 것이 일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엔도 그랬습니다. 케네디 씨에 따르면, 유엔은 창설 무렵부터 '일종의 삼각(三脚)의자'에 비유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다리는 국제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둘째 다리는 세계경제의 개선, 셋째 다리는 여러 국민 간 이해의 향상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케네디 씨는 "앞의 두 다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여러 국민 간의 정치적, 문화적 이해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명확히 내세우지 않으면 이 체제는 실패해 붕괴할 것이다." 하고 강조했습니다.

상호이해의 축진은 현재도 시급한 과제로서, 유엔은 올해를 '국제화해의 해'로, 내년을 '문화의 화해를 위한 국제의 해'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해명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관용과 대화가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이라는 점을 유엔이 주시하는 증거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난해 말부터 무력 충돌이 격렬해져 많은 희생자가 속출한 가자지구를 비롯해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세 등 심상치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 난민과 국내 피난민의 증가와 각지에서 확대되는 테러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처하려면 유엔의 통솔력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각국의 협력과 끈기 있는 외교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쇄적인 폭력과 증오를 모두 끊고 '평화의 문화'라는 공존의 보루를 쌓아 올리면서, 인간존엄을 기본으로 하는 '평화에 대한 권리'를 21세기의 세계를 지키는 견고한 석벽으로 삼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시대를 변혁하기 위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한 도전이 '대화'입니다.

나는 그 힘을 믿고 냉전대립이 심각한 1974년부터 1975년에 걸쳐 민간차원에서 중국과 옛 소련, 그리고 미국을 잇달아 방문해 정상들과 직접 대화하며 긴장완화의 길을 연 것을 비롯해, 분단이 점점 더해지는 세계에 우호와 신뢰의 다리를 놓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 토인비 박사가 주시한 것

역사가 토인비 박사는 그런 대화에 도전하는 내게 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백 년이나 천년 단위로 인류사의 흥망을 내려다보고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관을 이끌어낸 박사가 새로운 역사를 여는 원동력으로 주목한 것도 '인간성'이라는 공통의 대지에 뿌리 내린 대화가 지닌 가능성이었습니다.

박사는 반세기 전에 일본에서 "인간은 역사 속에서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사는 인간의 역사에는 어떠한 법칙성이나 반복성이라는 틀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도 그 개념을 800년 주기를 지닌 문명흥망의 순환까지 확대해왔지만, 그 반면 "전혀 틀이 없는 인간적 사상(事象)이 틀림없이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고 말하고 이렇게 결론지으셨습니다.

"인간적 사상 중에서 사실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점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해후접촉(邂逅接觸)의 분야다. 이 해후접촉 속에서 참으로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논했듯이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민족, 그리고 종교라는 틀에 사로잡혀 '추상화의 정신'의 덫에 걸려들었을 때, 인간은 '시류(時流)'라는 역사의 여울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상사(常事)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상대방의 표면에 쉽게 붙여진 상표를 제거하고 일개의 인격으로 마주 보며 대화라는 정신의 격렬한 논쟁을 거듭해야 비로소 토인비 박사가 말하는 궁극적인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물밑의 느릿한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인간을 가로막는 모든 울타리를 타고 넘어 어느 때는 서로 적대하는 나라를 왕복하고, 어느 때는 대화의 회로(回路)가 없는 나라들과 지역을 잇는 하나의 선이 되면서 세계 리더와 식자 여러분과 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담집은 50점을 넘고, 현재 준비 중인 대담을 포함하면 약 70점에 이릅니다.

### 인간 촉발의 대지를 넓히는 금지

돌이켜보면 창가학회는 1930년 한창 위기가 닥친 시대에 탄생했고, SGI도 또한 1975년 아주 어려운 시기에 발족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마키구치 초대 회장의 ‘인도적 경쟁’의 비전과 “지구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는 도다 제2대 회장의 열망을 기치로 내걸고 유엔 지원에 일관해 대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시민으로서 풀뿌리 수준으로 ‘평화의 문화’의 들판을 넓히는 대화의 실천을 착실히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다 제2대 회장이 나와 나누는 대화에서 “머지 않아 창가학회는 장대한 ‘인간’ 촉발의 대지가 된다.”고 전망하신 대로 인간주의로 이어진 민중의 선한 유대는 세계 192개국에 크게 넓혀졌습니다.

그 금지와 사명을 가슴에 품고 내년 창가학회 창립 80주년과 SGI 발족 35주년을 목표로 하여 ‘대화’의 힘으로 전 세계적인 민중의 연대를 구축하면서 ‘평화와 공생의 세기’로 나아가는 길을 끝까지 열어가겠습니다.

### 참고자료

1. 이와이 가쓰히토, '21세기 자본주의론', 지쿠마쇼보.
2. 고지마 다케히코 옮김, '마르셀 저작집6', 순주사.
3. A. 마타이스/사사키 다카시 옮김, '돈키호테에 관한 사색', 겐다이시소사.
4. '폭주하는 자본주의'(원제목은 '초자본주의'. 아메미야 히로시 · 이마이 아키코 옮김 도요게이사이신문사).
5. '마르셀 저작집6'.
6. '뉴스위크'지(일본판, 1996년 2월 21일호).
7. '위대한 혼의 시',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15권'수록.
8. '21세기 역사'(하야시 마사히로 옮김, 사쿠힌사).
9. 오쓰카 히사오·이키마츠 게이조 옮김, '종교사회학론선'.
10.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2권', 제3문명사, 현대표기로 개정했다.
11. 야마오카 요이치 옮김, '소프트 · 파워', 니혼게이사이신문사.
12.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2권'.
13. '21세기 정신의 교훈',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105권' 수록.
14. 니노미야 마사토 · 아키즈키 히로코 감수, '인간개발보고서 2007/2008', 한큐커뮤니케이션즈.
15.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2권', 제3문명사.
16. 이시즈카 마사히코 옮김, '자유와 경제개발', 니혼게이사이신문사.
17. 피스 디포(Peace Depot)'핵무기 · 핵실험 모니터'제 307~8호.
18. '21세기를 여는 대화',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3권' 수록.
19. 폴 케네디, '인류의 의회'(고가바야시 유키 옮김, 니혼게이사이신문사).
20. 세이쿄신문 1992년 3월 4일자.
21. 요코다 요조 · 미야노 요이치 편저,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연합의 미래', 중앙대학교출판부.
22. '우시오', 2008년 12월호
23. 마쓰모토 시게하루 편역, '역사의 교훈', 이와나미서점.
24. 후카세 모토히로 옮김, '시련에 처한 문명', 샤키이시소사.